



“문민독재 조기퇴진”, 한총련 투쟁선포식

총궐기 도중 경찰에 의해 두개골 함몰 등 부상



경제위기 해 노동자 및 인가 재발중심경제구조가 안아온 빛을 해 노동자가 갈아야 하는가. 지난 28일(금) 중요공원에서 4차 총파업 집회가 열렸다. 빗속에서 100여명의 노동자들은 노동법 재개정을 넘어 정권교체를 외치고 있었다.

김태형 기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은 김영삼정권 취임 4주년이 되는 지난 2월 25일(화) 전국에서 '학벌철폐와 실업폭력 부패비리 문민독재 조기타도를 위한 백만화도 투쟁선포식'을 가졌다. 한양대에서 2시부터 시작된 한총련 3차 총궐기는 공대학에 의해 한양대가 원천봉쇄된 상황에서 약 8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저녁 8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총궐기에서 한총련은 김영삼정권 4년 동안의 실정을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임기내에 김영삼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영삼 임시외장 이병현(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은 "김영삼정권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막았던 참정권을 개방하고 이제 금융, 통신시장 등에 개방하라 하고 있다. 또한 정권은 노동법, 안기부법을 날치기 개악해 국민 모두를 압살하려 들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의 경제위기와 한보사태에 대해 사총련 임시외장 장진섭(단국대 총학생회장)은 "한재의 경제위기는 미국에 연속되어 있는 경제구조와 몇몇 재

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현 경제위기를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떠넘기려는 정권을 꼭 임기내에 타도하자"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연설을 한 한총련 대변인 정영호(한양대 총학생회장)군은 "우리는 총파업을 거치면서 민중단결의 중요성과 민주적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두가지 교훈을 얻었다"고 또 "민중들의 단결과 한총련의 선포투쟁을 발판으로 민중을 압살하는 정권인 김영삼 정권을 반드시 우리 손으로 타도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치고 국민안전권을 나가려던 학생들을 전방경찰과 백골단이 저지하던 과정에서 한양대 학생 한명이 돌에 맞아 두개골이 함몰되는 등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고, 모두 7명의 학생이 연행됐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가한 우리학교 학생 40여명은 집회회 지하철에서 시민들에게 유언장을 돌리며 선전전을 펼쳤다.

허윤숙 기자



마을 사람들의 지혜

▲어릴 적 '양치기 소년'에 관한 동화를 읽었다. 늑대에게 자신의 양을 몽땅 빼앗기며 울부짖는 소년을 보며 '거짓말은 어떤 안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다. 1997년 오늘, 이제 '양치기 소년'은 나에게 새로운 교훈으로 다가온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에 여러번 놀아났지만 결국에 가서는 양치기 소년의 말·마지막에 한 말이 비록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소년의 행동은 그의 말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 을 믿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경외감이 그것이다. 그들에게서 '두번 다시 속지 않겠다'는 의지를 읽었다.

▲바이야로 대장장이다. 굳이 '정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해방 이후 50년 동안 '대전' 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별정' '용공' 시비에 기인한다. 외세에 의해 남·북으로 갈라진 이후 정국은 자신들이 힘을 때마디 '반공'을 내세워 왔다. 50년이 지나면서 그 '별정'이 무더기질만도 해마다 '남'의 예리함은 여전하다. ▲'북한주민 각자' 탈출 '탈출명 명명' '이탈명 피상' 등으로 이어지는 '북쪽'은 어느 때보다 위력을 발휘하면서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한보사태'를 받아 쫓겨나고 있다. 그리고 그 뒷방문을 피해 '노동법·안기부법 개악' '한보사태'를 제기하려 한 여자들이 '북쪽'이 화를 야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북쪽'에 맞서 싸우려는 이들이 너무 적다는 거다. 설혹 있다하더라도 '마을'은 있고 '행동'이 없다. 역시 우리나라에서 '북쪽'은 어떤 바람과도 비교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동화 '양치기 소년'이 교훈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양은 빼앗겼지만 양치기 소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명쾌한 교훈을 남겨준 '마을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동화의 주연은 더이상 '양치기 소년'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이 해야 한다. 우리가 그 역할을 맡자. 그래서 그들에게 '양치기 소년'의 동화를 다시 들려 주자. 그들이 읽는 건 '양'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김태형

양 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진행

서울, 지난 20~22일, 용인 오는 5~7일 예정

서울배움터의 새터는 지난 20(목)~22(토)까지 진행되었으 며 용인배움터의 경우는 오는 5 일(수)부터 7일(금)까지 진행된다.

서울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가 지난 달 20일(목)에서 22일(토)까지 2박 3일간 속초 하일라군도에서 열렸다.

첫날(20일) 속초에 도착해 개별적으로 과별, 조별, 단체별 행사를 진행했다. 둘째날(21일)은 상경대의 관우 5관, 사회대의 배이스캠프 등 단체대별로 행사를 치른 후,

저녁 8시경 총학생회행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는 31대 총학생회의 마지막 '자유와 즐거움'을 중심 주제로 의인부대 공연, 영상 메시지, 새내기 율동패와 노래대 공연이 있었다. 마지막날인 22일에는 학교로 돌아와 과,단대별로 뒤편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새터에 참가한 새내기 김운정(법·법학 1)장은 "중앙행사 때 비디오가 잘 안 보이고 추웠지만 단체에서 개최한 안기부법·노동법 개악에 대한 강연 등이 너무 좋았다"고 평가했다.

용인

97년도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18

대 총학생회의 주관으로 오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2박 3일간 수안보 와이키키 관광호텔, 사조마을, 한양호텔에서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땀으로 이루어진 용인, 이제 7천의 사람사랑으로 세상을 수놓을시다'란 주제로 열린다. 이와 관련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경환(사학·러시아 3)군은 "개강 이후 새터를 여는 것이 처음이라 인원산출이 어려웠고 2700을 한 곳에 모을 방법, 우원지의 대비등이 어려웠다"며 "작은 실수가 있더라도 학생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이겨내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명재권 기자

기무사, 용인배움터 압수수색

학생측, 대학당국에 해명 요구

지난 1월 4일(토) 오후 9시경 기무사 대공과 요원 3명이 용인배움터 학생회관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공과 요원들은 학생회관 3층에 있는 동아리 거제사를 뒤지는 과정에서 학생회장 수위 이만희에게 불합당자 '간첩심도 대공상당 경수사 김형수'라고 쓰여진 명함을 건네주고 달아났다.

이에 총학생회가 이들의 신원을 조사해본 결과 국군 3군 사령부 소속 기무부대 요원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김홍철(자연·화학 4)군은 "문

민정보라고 일컬어지는 정권의 기무 구 중 하나인 기무사가 학원을 침탈하는 것이 문민정부의 본질임을 느꼈다"며 "이 사건에 대해 대학 당국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부

사·형

편집장 면 고병권(서양·포르투갈) 임 김태형(법·법학 3) 3월 3일자

용인배움터 전 총학생회장 이재규군 연행돼

이재규군 연행돼

용인배움터 17대 총학생회장 이재규(자연·화학 4)군이 오랜 수배생활 끝에 지난 2월 14일(금) 오후 4시경 전주에서 보안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다.

작년 한총련 연세대 통일부장관 관련돼 수배를 받아온 이군은 현재 수원구치소에 있으며, 그의 구속 사유는 △이적단체에 가입 △이적 표현을 배포 △학생들을 이적단체로 선동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기부는 이재규군을 수배하던 중 그의 친한 친구인 김형한(경희대 수위 배움터, 유전공 4)군을 붙잡아 이재규 군의 행방을 알기위해 취조하면서 많은

구타와 고문을 가해 그가 분신하는 일이 일어났다. (관련기사 신년호)

이에 대해 용인배움터 18대 총학생회는 "안기부법 개악지지와 이재규군 석방을 위해 학생우월과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규군은 작년 경기도 등 부동원 의원, 경기안원지역 의정대행을 수행했다.

명재권 기자

지면 안내

집중합구, 교수연구 등의 존재 이유, 큰발이슈 아니면 대외신선용??? ... 3

중국 보러와요! 뭐이 내 ... 7

김영삼 정권은 민중을 ... 8

오르막만 있는 통행, ... 10

기대하십니까?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김대통령은 국민앞에 고개숙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안기부법은 안보태세 강화를 이유로 정당하다고 합니다.
기대하십니까?
국민의 뜻대로 정치가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의 바램은 우리가 이릅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사 설

가슴을 활짝 열고 새하기를 맞이하자

이제 길고 긴 겨울도 끝나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다. 오늘은 새내기들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4년간의 대학생활이 시작되는 첫 날이다. 재학생들에게는 다시 맞는 소중한 한 학기를 새로 시작하는 날이다. 겨우내내 움츠러들었던 캠퍼스가 모처럼 활기로 가득하다. 자국의 혼돈으로 사회적 상황속에서 우리는 개강에 즈음하여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대학생활의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를 느끼게 된다.

대학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대학은 전통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고, 사회봉사하는 곳으로 여겨져 왔다. '연구'는 우선적으로 전공학문을 연구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나아가 그를 뛰어넘는 총체적 진리탐구를 가리킨다. '교육'은 진리탐구의 길에 있어 앞서 간 선배인 교수나 후배인 학생들에게 학문을 전수하고 또 함께 탐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봉사'란 학문을 통해 살고 싶은 인간과 능력 있는 사회에 환원하는 것인 동시에 탐구한 진리를 사회적으로 실천하는 일을 일컫는다. 우리는 먼저 강의실에서 교수와 학원간에 학문을 매개로 한 탐구와 또 진리를 만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연구실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찾아 연구하는 교수들의 모습은 상이한데도 한 것이다. 눈은 빛내며 교수들의 열정을 듣고 토하여 임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캠퍼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리고 신세 및 동료학생들과 어울려 진지하게 토론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모습에서 대학생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유형을 발견한다. 그러나 있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이미 배운것들, 이미 알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학생을 키워주는 사회의 구성원 부분, 소위된 부분에 환원하고, 나아가 이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총 출력을 아끼는 일이다. 우리의 크고 작은 공동체의 참된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적인 모습은 진정 아름답게 꾸며진 모습에 한계가 있다. 자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가슴을 활짝 열고 진취적인 자세로 새하기를 맞이하자.

한반도 끝까지 규명되어야

본보가 지난호를 낸 지 12월 12일부터 지금까지 두달여를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가 과연 과거 군부독재시절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단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우선 12월말 노동법과 안기부법이 '문민정부' 이후에 제정된다는 사실은 반갑다. 그것을 얻은 것은 한반도사태의 '복합'이었다. 한반도사태가 정치적 배치가 아니라 의의라는 이유로 바로 이 것이다. 현 정권과 관련 수천억원의 정치자금 조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반도'는 대의주의와 실재인 '문명'은 규명되지 않고 '기밀' 및 '비밀' 규속되는 수 준에서 갈갈 수사가 종결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의주의의 실체 '기밀' 및 '비밀'이라고 하는 국민이나 정치자금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을 검찰 이외의로는 은폐해도 좋고 받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와는 일부 국민에 의해 '부패하고 무능하면서 고관하고 줄을 잡는다' 개혁의 결실물로 규정되고, 국민에게 고공포악하면서 '부정'을 은연하에서 수사하면서 자신의 고공주인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도리어 상선 얼굴로 자처하는 위대한 행위를 하는 '열강'들로 나타나는 국민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특검으로 전권적인 제1차회의 해를 하는 국민들의 뜻이 있는 주장은 거듭 묵살되었다. 결과적으로 국회특조위 조사 임무가 넘어 왔지만 청문회 중인 채택준과 TV 생중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충돌이 있어도 할 말, 할 바는 전진이 없다. 한반도 사태의 실제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여의가 더 이상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김영삼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회개혁이라는 이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명'의 의의를 보고 있는 김원철씨와 여당의 무리대선주자들, 그리고 관련된 정치 협회 수석비서관 및 장관들을 종언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TV로 생중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권력형의 큰 비리 사건이 터졌을 때는 특별검사를 제도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것이 김영삼대통령이 초심을 관철하여 자기 삶과 뼈를 도려내는 아픔을 참고 끝까지 개혁을 지행합하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시는 안 될 것이다.

출산의 소리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주장하는 외대인의 기상을 기대합니다.

2002년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함께 나누십시오.

원고 마감은 매주 금요일 오후이며, 서울·용인 학생기자실로 오십시오. 컴퓨터 통신을 통해서도 원고를 발송합니다.

(하위일 OEDAE, 나누누리 외대학보)저택원 원고에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단결은 투쟁보다 큰 힘

1997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새학기 새해 벽두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동법 안기부법 남치기 투쟁과 노동계의 총파업투쟁과 이어서 타진, 단교에 최대의 권력형 부정부패 비리사건인 한보사태, 금관징계를 물고 울 활장 연설의 망명 등 우리 사회는 분노와 경악을 넘어 3월 3일 등 위기철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대하여 나라 살림살이를 맡은 위정자나 권력자 노동계와 정치인들은 책임을 지고 자숙하는 자세 오히려 정세를 주도하고 변에 급급한 막판 실정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신성한 우리 국민들은 허리를 펴고서 열심, 근면정신과 나라의 정의를 실현을 위해 참을아 일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명백, 황폐한 이념으로 일타에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현실입니다.

외대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는 나라 안팎이 노동법·안기부법 제정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 투쟁을 할 때, 우리들은 남의 일 인양 거들방학의 휴가를 켜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웃고 즐기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우리들

의 정수리에 찬물을 끼얹는 불합리한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승하차 무임차량 부사 배제, 그리고 학과와 재단의 인사교류 금지제 무시하고 재단 수석비서관으로 대학에서 공개 채용한 직원들의 전근 조치, 재단 직원의 해고 보직 발령, 나아가서는 정년 차별 연봉 지급, 용역의 확대(용역직이 이이 가능하게 해 주며 도대치한 절차적으로 사 무, 기술적으로 용역직 대체할 수 있을 등 그야말로 인사상의 대대적 난입이 오랜 세월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내사내 소제 대충 중위급에 속해 있는 우리대원들의 임명에 대한 불복 학과교과인 인사관 제(%)인식, 사정 함의도 없이 슬그머니 연봉인 교시 수입과 교시로 인한 근무시간 연장, 교직원 주저비 정수 등 우리 대학의 상황은 갈수록 열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직원들은 노동조합 직원들의 경우와 동등으로 나타나서 스스로의 불만을 분산 시키고 학교정부를 이용(??)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각의 이해관계로 처부되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학교정부는 97년도 대학총학생회를 잘 발기위하여 직원들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학의 발전과 직원의 발전을 돕는다는 관건임에



안병만(총장)

이제 겨울도 다가고 만물이 서서히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본고 입학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께 우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선택한 것은 세계화시대에 있어 가장 앞선 선택이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작년말 국기로부터 국제전문인력 양성 특성을 위한 최우선 다짐에 대학 가운데 하나로 성장해왔습니다. 국기로부터 우리나라의 세계화에 있어 가장 공로가 많은 대학으로서, 그리고 21세기 세계의 최우선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가장 풍부한 대학으로 공인을 받고 또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외대는 이러한 지체기를 선도할 대학으로 민족적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각 분야에 있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해당분야의 국제적 전문가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독자만평



윤석진(사법·이해리교과 2)

추

금년 2학기부터는 이의 일환으로서 서울대학교와 정식으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교수와 직원들도 서로 교류하게 되지만 학생들의 학점 교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두 대학의 캠퍼스의 벽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외국 대학들과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금년부터는 그 폭을 초월하여 광범위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꿈에 그리던 대학인이 되었습니까? 앞으로의 학업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유와 자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의 생활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수업 이외의 활동은 여러분의 결정으로 자유의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임으로 배정된 학과에서 공부하고 사회에서도 그 독자적인 결정의 자유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만큼 대학은 자유로운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는 자치 방종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것은 자율입니다. 스스로 스스로를 규제하지 않으면 규율에 걸려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스스로가 대학이 준 '자유'라는 큰 선물을 자의로써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영예로운 입학의 거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학교에 재시하는 것과 같이 진리, 평화, 창조의 정신을 체화한 자취학과 국제적이며 전문적인 뛰어난 지성인들로 성장하시어 사회에 진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



이숙경(재단 이사장)

세로이 외대 가족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처럼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들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훌륭하게 키워주신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감사와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대학생활의 길은 고수년들과 대담하고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창의적인 노력과 변혁의 열정 그리고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게 될 때 비로소 바람직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될 신입생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 목표대로 진리를 탐구하는 창조적 삶에서 바람직한 대학생활을 생활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행복한 대학인이 되길 기대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는 바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의 보람차고 앞장 대학생활이 희망찬 새봄과 함께 활짝 열리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신입생들이 훌륭한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학부모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직원들은 모두 힘을 모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신입점집장 인사말-김태형(법·법학 3)

'꾸준함의 미덕'을 지닌 학보를 만들겠습니다

"21세기가 우리를 기다린다" "21세기, 아시아 시대가 열린다" 대중적인 매체를 중심으로 "21세기 미래로"가 관을 치고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이 끝나고 2000년 1월 1일이 되면 세상이 갑자기 변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21세기 1월은 똑같은 24시간의 개념일 뿐 별다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1세기가 시작되는 1월 1일이 아니라 21세기를 위한 '꾸준함' 준비입니다. 준비하는 길에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세상이라는 막연한 21-21세기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상황(노동법·안기부법 남치기 투쟁, 한보사태 등)을 보고 있는대로 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꾸준함의 미덕'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21세기 '발전'의 '꾸준함'이 아닌 '비극적'인 '꾸준함'이라 적정되지 않습니다.

개강입니다. 새내기들은 입학의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재학생들은 조금은 해산배반 대학생활에 대한 꿈을 만회해보려는 나름대로의 소박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도 계획을 완수하려는 '꾸준함'의 노력이었다면 그 계획은 탁상공론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계획이 더욱 빛나기 위해서는 '꾸준함의 미덕'은 그 무엇보다 전지되어야 할 원칙입니다.

본보도 오늘(3일)로 개간호를 냈습니다. 나름대로 지난 학기 평가를 바탕으로 이번 학기의 조그만 원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재도연들이 사후에 흔들리며 재도연들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원칙'과 '꾸준함'을 가지고 지면을 통해 학생들에게서 만나고자 합니다. 흔히 기지개를 '열었다'는 것도 자라고 있습니다. 지면에 기지개 사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에 반해 정치인들이나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표현입니다. 얘기가 없기 때문에(?) 무책임할 뿐 아니라 '원칙'과 '꾸준함'이 아닌 '비극적'인 '꾸준함'이라 적정되지 않습니다.

개강입니다. 새내기들은 입학의 통해 대학생활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재학생들은 조금은 해산배반 대학생활에 대한 꿈을 만회해보려는 나름대로의 소박한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투쟁 안하면 다시 돌아올까

- 김 호 -

국대대 뭘 하나 등록금은 더 비싼걸	난 간다. 외대의 미래는 너희에게	외대를 사랑해야 외대가 발전한다	- 독 89 -
-중 91-	-애 이쁜애-	미래를 봅시다	- 미성년 90 -
늘 깨어있는 지성인이 되시길		놀면서 공부하세요	- 경매 91 -
-독고 93년지-		주제: 졸업생이 97새내기에게 한마디	조국과 외대를 우리를 맺어온 아름다운 인연 영원히
니들도 금방이다	-상대-	여러분은 젊고 가능성이 무한하기에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우요 김현아-
넓은 꿈을 가지고 많은 경험하면서 보람있는 대학생 활하세요	-화고연-		

고 있다.

하지만 외대인들의 공언을 보았을 때, '과연 이것이 새내기들에게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대학문화의 변화들이 야기하는 한 시대라는 하지만 아직까지 암기주위 입시공부의 풍조가 남아있는 새내기들이 그러한 파격적인 문화에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이 ROCK 음악이 진정한 대학문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오히려 본다. 대학문화의 정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장르임에도 두대 셋대만 시간하면서 그것을 위

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물론 총학생회에서는 새내기 새로 배틀러 전면에 대해 해설과 수고를 하고있고 그러다 보니 행사 자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우리 외대를 책임지는 총학생회와 일의 비중으로 인한 전체 행사의 소홀함은 한 번 심각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김현수(사학·신문방송 3)

학술단 - 등소평의 사후평가와 금후 정책 방향

고급 단계 사회주의 위한 시장경제 실험 정치 민주화 · 천안문 사건 재평가 제기될 듯

1978년 12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11기 3중 전회의에 개혁 개방정책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중국 최고의 지도자로 군림하던 등소평이 지난 2월 19일 93세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감했다.

20세기 들어 모택동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정권을 잡을, 30여년간 중국을 통치한 건국의 공로자라면 등소평은 그 뒤를 이어 개혁개방정책으로 낙후된 경제를 신속하게 발전시킨 중국근대화의 주역이었다. 10년간의 내란과 제약을 가져다준 문화대혁명(1966-1976)을 모택동 사후에 강령 등 4인방을 숙청함으로써 청산, 중국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끈 등소평의 생애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역사의 한 장으로 남게 되었다.

등소평의 사망이후에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경 북요어에 추진되고 있는 '하나의 중심 · 두 개의 기본점'이라는 정책방향이 계속 유지될 것인지는, 다시 말하면,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삼고, 마르크스 · 레닌주의 · 모택동사상 경지, 사회주의노선 경지, 공산당 영도원칙 경지, 인민민주주의 경지와 개혁 · 개방이 계속 추진될 것인지를, 또 정치적 안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세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원 고요한데 검은 고요한데'란 위만 잘 잠으면 좋은 고요이다. '빈곤과 공멸이 사회주의가 아니다', '자본주의에 계획경제가 있으면 사회주의에도 시장경제가 있다', '전리의 표준을 검증하는 것은 실사구시에서 입증된다'라는 구호는 등소평이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내세운 구호이다.

등소평의 위대한 업적은 그의 통치철학이 이론과 실천을 결합을 통해 과감한 이론정립과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등소평은 지난 17년간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정립과 실천과정을 수행해왔다.

첫째, 철학적 반성과 역사정산을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택동시대의 공과를 솔직하게 평가했고, 문화 대혁명 이후 낙후된 경제상황과 이로 인해 피폐된 국민정서를 어루만져 주었다. 둘째,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정형화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국가정세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용감한 이론수정을 통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국가목표 아래 점진적인 이론정립과 실천이 수행되었는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1) 당 · 정 · 군의 개혁 및 부정부패 반대운동 전개
- 2) 농촌개혁을 통한 도농생산제 도입
- 3) 경제특구 설치
- 4) 항진기업 발전과 국유기업 개선
- 5)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정립
- 6)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정립
- 7) 사회주의 정신문명론
- 8)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정립

이상과 같이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돌

입했으며, 매 단계마다 끊임없는 부정부패 척결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제 국가이든 그 국가의 최고 통치자의 통치철학 여하에 따라 그 국가가 발전하는가 낙후되는가가 결정된다. 특히 후진국이나 발전도상국에서는 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말해 중국 근현대사는 등소평과 같은 정밀 훌륭한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기에 행복하

고 우리나라 국민은 (북한 포함) 정말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다.

등소평은 과거 정경시대 모택동의 수행 비서로부터 출발해서 모의 총애를 받아 출세기도를 달려왔으나, 1956년 중국공산당 제 8차 전당대회에서는 모택동의 개인우상화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등 직언을 서슴치 않는 용감한 인물이었다. 이는 최근 10여년간 우리 사회에 나타난 최고 통치자의 통치철학 반론과 이로 인한 내부파의 난무와 총각한 신화의 결여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사회주의 중국공산당 소련이 붕괴된으로서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존엄을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왜 유독 중국만이 사회주의의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가? 물론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마르크스 · 엥겔스 · 레닌 등의 이론이 중심이 되지만 그것은 틀에 묶인 정형화된 이론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국가의 환경과 국제적 환경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것이 모택동사상의 중심고리이고 그것이 등소평시대에는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또 그것은 과감한 이론 수정과 실천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제 13차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사회주의의 초급단계론을 볼 것 같으면 정통적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구상이다. 즉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이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도 그동안 경제가 후진되고 있고 인종,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투입된 수단을 중국사회주의에서는 수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행된 발전책만을 도입하여 생산력을 증대시켜야 진정한 사회주의로 진입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마르크스 이론에 따르



중국을 보다높은 단계의 사회주의를 위해 개혁개방의 계속적인 추진과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건설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면 역사 발전단계들 자본주의 → 사회주의 → 공산주의로 규정했으나, 등소평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이론은 사회주의의 단계를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구분해야 하며 초급단계(100년간) 설정에서는 생산력 증진을 위해 어떠한 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유제를 기본 고리로 삼고 다양한 경제성분을 운용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상에 우리는 등소평에 대한 평가를 대체적으로 파악했다. 물론 개혁개방 초기가 말에서부터 올라오는 국민의 불만을 지도자가 깨달아 위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 국민들의 눈은 밝다. 19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중국 주위들의 침략과 이의 극복을 위한 중국인들의 각종 노력, 정치경제적 갈등은 결국 중국국민이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이데올로기의 경직성, 모택동의 정치 운운, 국제적 환경 등으로 건국 이래 30여년간 경제가 낙후를 초래했으나 이제 국민의 힘은 이것을 극복하고 발전적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등소평 사후 어떻게 풀어갈지가 문제이다.

첫째,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특성의 하나인 최고 지도자 용임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권력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그것은 금년 6월 중국공산당 제 15차 전당대회에서 밝혀

질 것이다. 두 번째 난제는 그동안 군을 장악하고 있던 등소평이 사망함으로써 군이 최고 실력자 용임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금후 권력투쟁에 관련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난제는 중앙과 지방과의 의견충돌이다. 과거 등소평 시대에는 지방관료나 군간부들이 등의 카리스마에 눌려 중앙정부의 정책에 호응했으나, 지역적 차이와 경제 상황의 격차로 인해 상당한 문제점이 표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등소평 사후 나타난 난제들과 정치민주화, 천안문사건의 재평가 등의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금후 방향은 개혁개방의 계속적인 추진과 경제 발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중심 · 두개의 기본점'이라는 발전정책을 조금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은 계속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이데올로기적 모순과 정치, 경제,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최 관 장

(중국학과 교수)

생 활동서관 준비모임 대표 이 현 (서양 · 스칸디나비아3)군을 만나

"지성적 · 학술적 대중공간으로 자리매김"



생 활동서관 준비모임 대표 이 현 (서양 · 스칸디나비아3)군을 만나

생 활동서관 준비모임은 언제부터 해왔고 지금은 어느 정도로 전진하고 있는가? 95년 대학사회에서의 진정한 '지성적' 품도 조성과 아직도 폐쇄적인 우리 사회 대부분의 일상속에서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출발하여 사회를 향한 변화를 만들어갈 것에 합의하면서 95년에 처음 모였고 96년 정식으로 준비모임을 구성한 이래 지금까지 사람들을 만나기만 해왔고 도서목록 작성, 자료집 제작 같은 일을 해 왔다. 지금은 발간인을 모집하여 80여명이 모였고 책은

700권 정도 모여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계속 공간문제를 학교측과 얘기하고 있다. 곧 공간이 생길 것 같다.

외대에 생활도서관이 생기는 학술적으로 어떤 측면을 담보할 수 있는가? 외대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술적이지 못한 점도나 분위기가 좀 있다. 학회활동도 많이 부진한 편이다. 생활도서관은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도서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유통시키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학회들에게는 자료실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학회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진보적인 사상에 관심이 많고 사회적 문제에 민감한 젊은이들이 많고 학회나 학회활동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학우들이 많다. 그런 학우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진보적 주제에 대한 논쟁을 기회함으로써 건강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생활도서관의 위대한 위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생활도서관의 위상이나 의미배치는 대중적으로 자리매김되면서 학우들의 승인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정보센터형태를 지향하고있고 복합적인 위상을 갖기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구상중이다. 덧붙이면 다면 비합리적이고 자립적인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의 대안이라는 틀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학우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정기적인 초청강연이나 기획자료집 발간, 학술발표 등의 기획적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공간만 확보된다면 파나 학회의 학술발표회에 공문을 제공해줄 수도 있고 진보인사들이나 재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대생들을, 역대 총학생회장님 등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우리 모임에서 발간한 강남주 자료집처럼 기획자료집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레 생활도서관에 걸맞는 수용자 층이 형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생활도서관의 위대한 위상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생활도서관의 위상이나 의미배치는 대중적으로 자리매김되면서 학우들의 승인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정보센터형태를 지향하고있고 복합적인 위상을 갖기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구상중이다. 덧붙이면 다면 비합리적이고 자립적인 새로운 대학문화 창조의 대안이라는 틀로서도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박노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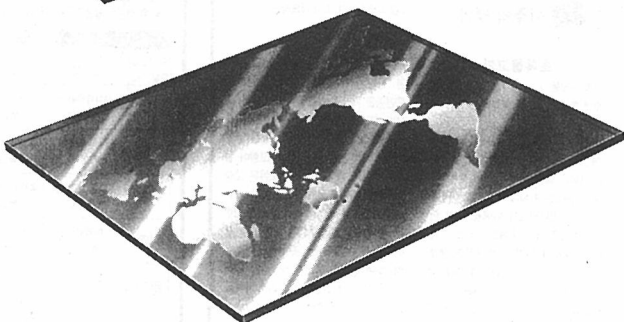
통일민족사관의 확립을 위하여

대학에 들어와서 받게되는 여러 종류의 지적인 충격을 중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받게되는 충격이 참으로 크지 않을 수 없다. 그러한 충격의 계기를 마련해주는 '본다시대와 역사인식',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 등을 쓴 우리 역사학자의 저술과 학자 간의 교감 교섭이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의 글을 가벼운 형식으로 담은 책 '역사를 위하여'를 내놓았다. 사본적으로 쓴 글들을 모아서 엮은 이 책은 역사 자체의 문제, 우리의 역사적 과제인 민족문제의 통일문제를 주제로 하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있다. 결국 역사는 누가 쓰느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역사, 즉 철저한 민족본단주의 이데올로기를 뿌리로 하고 있는 민족민중통일적 군사독재정권이 만들고 가르쳐온 우리의 역사가 과연 믿음직한 것인가? 또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추세에서 특정 민족사회가 그 문화적 주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와 왜 우리에게 흡수정권이 비합리적인 수밖에 없고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는 지 한 번쯤 생각해볼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강요하는 2차 세계대전까지의 패배적, 패소적 침략적인 의미에서의 민족주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민족주의 시대에 따라 변하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현 시점에서의 우리의 민족주의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통일 민족주의'로 성장해야하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민족주의의 사관을 꼭 수립해야한다고 단언한다. 이 책은 끝으로 역사의 방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역사는 모든 인간들이 정치적속박에서 벗어나는 길과 결별된 공간과 불균형에서 해방되는 길,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해내는 길이다.' '역사를 위하여'는 역사란 왜 변증법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민족과 통일이라는 화두를 붙잡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책이다.

학술부

HANGLAS



세계 10대 유리메이커, 한국유리 -40년 외질의 결실입니다.

불모지였던 국내 유리산업의 용광로에 불을 지핀 이래, 오로지 유리에만 전념해 온 40년 외질. 이제, 그 결실로 한국유리는 우리나라 유리산업을 대표하며, 세계10대 유리종합메이커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좋은 유리를 통해 세상을 밝고, 아름답고, 이롭게

HANGLAS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한국유리가 만듭니다

관류리, 관류리, 유리섬유, 유리강섬유, 결정유리, 건축용안전유리, 자동차안전유리, TV보관유리, 경질유리, 실험토

글 쓰는 순서

1. 변모하는 중국
2. 중국의 대학, 대학생
3. 세계속의 외대, 동문들을 만나
4. 중국과 홍콩, 대만과의 통일 문제
5. 석학인터뷰-중국의 문제점
6. 개혁개방
7. 중국식 사회주의



중국인, 그들은 여유가 있었다

낮에는 사회주의, 밤에는 자본주의

중국은 달라지고 있었다.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과 현실의 중국은 상당히 달랐다. '생산수단을 공유한 사회주의국가' '뜻있는 나라' 등으로 생각했던 것만 다를 뿐 아니라, 모순치고는 상당히 발전해 있었다.

도착 첫날 북경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놀랐다. 수십층짜리 고층빌딩은 자본주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고층빌딩은 셀 수도 없었다.

나중에 상해에 들었을 때는 중국이 두렵게 느껴지기 까지 했다. 상해는 북경보다 훨씬 발전되었다. 정치는 북경이지만 경제는 상해다. 미국의 워싱턴과 뉴욕 등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상해는 도시전체가 건설중인 것처럼 느껴졌다. 아담가도 공사중이었다. 동양 최대의 자유무역도시를 꿈꾸며 홍콩을 넘어설 야심에 차 있었다.

자동차도 많았다. 차가 막히는 건 서울이나 북경이나 마찬가지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북경의 차들은 변칙에서 우리의 포니보다 더 유치한 수준의 차까지 천차만별이라는 것 뿐이다.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다. 물론 자전차를 타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사유재산은 인정된지 이미 오래고 농촌에서는 합동농장, 인민공사가 사라지고 합작기업이라는 아주 낮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있을 뿐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많은 말이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큰 변화를 가져왔을 줄은 몰랐다.

전통적인 사회주의의 개념과는 너무나 달라 체제전은 담뻛했다. 도대체 사회주의식 시장경제가 자본주의식 시장경제와 무엇이 다를까 무척 궁금해졌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물었다. "도대체 뭐가 사회주의인지

모르겠다"며 "한국사람 똑같이요"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중국은 우리와 똑같지 않지만 비슷해지고 있었다.

정사관도 있고 기업가도 있었다. 그러나 다녀보니 시장 경제를 도입했다하더라도 사회주의국가라 다른 점이 많았다. 가장 큰 것으로는 의식주, 교육비, 의료비 등이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는 점이다.

국영기업이나 관공서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죽을때까지 집을 빌려 준다. 개혁개방 이전엔 국영기업이 전부였고 지금도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중국인의 대부분이 나라에서 대우한 집에서 살고 있다고 보편된다. 퇴직금도 모두 집이 주어진다.

쌀, 야채, 육류는 정말 싼다. 한 가지가 약 500원(한화 5만원)이던 한달살기 먹는다고 한다.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이고 대학은 1년에 약 1000원(한화 10만원)정도로 내면 된다. 생활품은 싸고 사치품은 비싸다. 양말 3켤레를 10원(한화 1000원)주고 사기도 했다. 자동차는 우리보다 더 비싸고 CD는 한 장에 약 70원(한화 7000원)정도로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보다 중국인들이 여유롭게 사는 것 같았다. 일과중에 낮잠시간도 있고 토요일도 한다. 우리 서민들은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일하고 야근도 해야하고, 10만원이 넘어가는 쌀을 먹어야 하고, 예를 대학교육까지 시키면서 자기집을 마련하려면 청춘을 바쳐야 하지만 중국인들은 우리 서민들이 풍성해보이는 것만 걸 국가의 힘으로 해결해주는 것이다. 그게 다른 점이였다.

계속해서 우린 경제개혁개방이 미친 영향에 대해 궁금해졌다. 아무리 오랜 역사와 전통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이지만 자본주의의 문화의 유입을 막아낼 수 있을까?

경제발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한문화를 보기 위해 방거리로 나섰다. 서울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밤 10시 넘어 숙소를 나섰다. 그런데 거기까 운운 어두웠다. 9시 반만 지나면 모든 상점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고 한다. 밤의 문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엔 술집, 노래방, 담배방, 가라오케 등 밤이면 오히려 더 놀 때가 많은데 베이징은 조용하기만 했다. 휴지는 중국인들이 밤에 다른 할 일이 없어서 인구가 많다는 빼앗는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베이징의 뒷거리에는 포르노영화관도 있고 심지어 창녀촌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지만 중국의 밤문화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해는 미안하나라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밤늦게도 문을 연 식당과 24시간 편의점이 여럿 눈에 띄었다.

이 모든 변화가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 따른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성과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중국인들은 등소평이 '중국인들을 온몸으로 소장으로 만들었다'의식생활을 격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조금 여유가 생겼을 뿐한'이라고 평가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대체적으로 개혁개방에 큰 불만이 없는 듯했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시장경제의 도입은 곧 사회주의의 몰락을 의미했지만 비해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의 가치를 내걸고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전선을 위해 이용하고 있었다.

중국 특색사회



중국은 생산수단을 공유한 사회주의 국가로 뜻하는 나라도 아니었다. 사진은 상해의 놀이마는 건물

학보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본국의 세계지형적 이미지를 학보에 반영하기 위해 해외취재기회를 준비하던 중 첫 대상지를 중국으로 택했다. 중국은 우리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고 지금도 우리의 첫번째 무역대상국으로 더욱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취재단은 해외정보를 직접 취재해 학보에 실을 수 있다는 부른 마음으로 지난 1월 19일부터 30일

까지 12일간 본보 주간 박재우(중국학)교수의 안내하에 중국과 북경과 상해를 다녀왔다. 이번 호부터 중간고사 직전 신문까지 7번에 걸쳐 본보 취재단이 직접 취재한 중국의 개혁개방, 중국식 사회주의, 외대동문들의 활약상, 중국의 현안 등을 실는다.

편집자

『100자 제2회 창작곡 발표회』의 주인공 백재길 (영양 90, 재입학)군

나의 노래가 아닌, 그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전 학생회에서 낯선 공연포스터 한장을 발견했다.

『100자 제 2회 창작곡발표회』
『100자』, 기자의 관심은 창작곡발표회가 아닌 『100자』는 인물에게로 쏠렸다. 그를 만나기 위해 27일(목) 졸업식으로 인해 북경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는 중 노천지와 '백박'방을 찾았다. 그곳엔 졸업식과는 또 다른 웅장거림과 즐거움이 있었다. 기타소리, 드럼소리를 사 이로 한 남자의 시원스럽고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묻지 않고도 그가 『100자』의 주인공임을 알 수 있었다. 녹테이프를 잡자마자 고장시키는 마이크,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널린 악보들, 술병들 속에서 그의 노래는 어떤 화려한 콘서트의 음악보다 화려하고 멋져 보였다. 그는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정을 나누고 싶다"며 초코파이를 권했다.

『100자』 무슨 뜻인가
특별한 뜻은 없다. 처음엔 성이 '백'이랑 장난삼아 그렇게 붙였는데 1학년때 농활가서는 될 수 있는 담배가 '백자'라는 담배밖에 없어서 그때 이후로 '백재길'보다는 '100자'로 더 많이 불려졌다.

100자 상해는 90대에 경영학과에 입학해서 중독해 활동을 하다가 그 해 말 현재의 상해대 노래 '백박'을 만들었다. 1학년때부터 창작활동을 시작했는데 93년 당시 총학생회 문화공작을 맡고 있었다. 또 94년 7월에 가기전까지 '꽃씨' '혁명동지' '별이불새' '정원식' 등 현재 외대인들의 애창곡의 상당부분을 창작했다.

왜 당시 총·부학생회장과 함께 하필 문화공작이 수배되었는가

(작년 총학생회장 상해에 비슷했던 같은데) 명분은 93년 6월 한중문화교류 시위주도 혐의다. 하지만 당시 수배당한 학교는 외대 뿐이다. 93년 재단과의 투쟁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당시 앞에 나서는 일이 많았던 것도 내가 수배된 원인이다.

노래는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고등학교 때 시를 썼었는데 내가 시를 쓰면 반친구가 곡을 썼는데 그 친구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 기타는 형이 대학교 1학년때 사워서 그때부터 다루게 되었다. 또 90년도에 '애국대전군'에 당선이 됐는데 그때 선배들의 출판권유와 보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

어떤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가

군대가기 전에 만들었던 '꽃씨'는 문헌학동문사를 기리기 위해 곡이다. 내 곡들은 대부분 주위 사람들의 얘기다. 군대에서도 TV에서 탄광촌사람들을 보고 '태백'을 썼고, 기억상실증환자들을 보고 '새로운 삶을 위하여'를 썼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 나의 노래가 주위사람들 내 노래의 대상인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고 힘이 될 수 있으면 한다. 그래서 내 노래이기보다는 그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한다.

이번 발표회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참고대로 군대에서 쓴 곡들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제가 이런이런 곡들을 만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편안한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는데 백박방에서 하러니 음향시설과 관람이 힘들어서 제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처음에 생각했던 조촐한 발표회가 너무 커져서 부임이 된다.

조국과 참군'이 락을 도입한 것'이나 '노자' '인자'의 상상력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좋다고 생각한다. 노래는 희화될 수 없다. 노래는 다양

화될 수고 다양한 시도를 해 볼수 있어야 한다. 다만 '지금'은 락의 시대라는 생각으로 희화적으로 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아달라. 내 역시 대학에 와서야 곡을 쓰게 되었다. 문예란 사람을 교양하는 인간학이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돼야한다. 또 문예문화를 열정적으로 향하면 좋겠다. 또 자기 나름의 색을 가지고 열정을 가져 천문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는 자신의 소망을 "동문들이 아니라도 '식물'이 라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인터뷰 도중 그가 계속 강조한 말이 있다. "나를 특별하고 광란한 사람"으로 쓰지 말아달라는 거다. 그렇다. 그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다. 농담도 할 줄 알고, 상스러운 욕설도 관하게 연설 줄 아는 학생이었다. 이제 그를 『100자』가 아닌 '백재길'로 감히 지칭하건나 도서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서윤경 기자



번잡한 건 싫어
그래서 난 영풍이야!



대학교재, 전문서적은 물론 문구류, CD,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도시 생활인을 위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의 대형문구점, 대형음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벤트홀, 배배방, 휴식공간까지 갖춘 완벽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지하철 종각역에서 나오시면 바로 영풍문고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 전문서적에서 CD, 생일 선물까지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매장이 넓어 여유있고 쾌적합니다.
- 효율적인 매장 구성으로 책찾기가 쉽습니다.
- 스낵코너, 이벤트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영풍문고
영풍문고 (주) (400)
영풍문고 (주) (400)
영풍문고 (주) (400)

문민독재 따라 경찰도 살인폭력

노점상 2명 경찰폭력에 사망, 용인대생 분신

김영삼정권의 살인적 폭력과 민중생존권 탄압이 일기 1년을 넘게된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다. 지난 2월 2일(일) 하루에만 민병대(40여)와 이종호(38) 등 두 명의 시민이 파출소 경찰에게 폭행당해 숨졌다. 또한 지난 2월 10일(월)에는 용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인 한상근 학우가 분신했다.

민병대 일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이 강제 철거가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서 지난 95년 철거투쟁에 참여했다. 구경장기민 대책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일하고 있던 민병대는 길가에서 봉고트리로 덮여진 장사를 하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민병대는 용인 신갈파출소에 배속된 장사기구를 찾았다고 파출소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뇌사상태에 빠졌다. 장수리과 이마사이가 8cm 함몰된 민병대는 결국 뇌사상태 2주일 만인 지난 15일(토) 아쉽게 사망했다.

이에 신갈파출소는 "장사기구를 찾으려온 민병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다 경찰이 때려서 뒤로 넘어갔다. 그때 민병가 보도블럭에 머리를 부딪혀 혼수상태에 빠진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첫수술을 담당한 남수원병원 의사 정도씨는 "뇌출혈이 심하고 두개골이 8cm나 함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뒤로 넘어가 다쳤다"고 보다는 앞이

마 부분을 곤봉같은 둔탁한 것으로 맞아 강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병대원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남경남(전국철거민연대 회장)씨는 "민병대의 앞마리 부분에 충격받은 흔적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간파한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항의하며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인천에 사는 노점상 이종호씨도 인천 신갈파출소 직원 안재희씨에게 맞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3일(목) 밤에 사망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열점 사람과 사소한 시비가 붙어 인근 안재희파출소로 연행돼 수사당국에 피의자로 기재지르던 중 경찰에게 폭행당했다. 그 결과 파출소직원 안재희씨가 이씨의 앞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우고 구두발로 가슴에 발길질을 해 이씨가 의식을 잃고 뇌사상태에 빠진 것이다. 또한 CT촬영 결과 뇌출혈이 두개골에 발견돼 안씨의 폭행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인천지방법원은 안씨를 기소했다.

지난 10일 새벽에는 용인대 한상근(27, 격33) 학우가 분신을 기도해 전신 90%에 34도의 화상을 입고 13일(목) 밤에 사망했다. 한씨는 올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을 맡아 김형태대책위원회 농성단 활동으로 15일장 병동농성

을 벌이는 등 의협심과 애국심이 남달리 강했다고 한다. 언론과 경찰, 학교측에서는 가정문제에 의해 한씨가 분신을 했다고 밝혔으나, 가족측에 의하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한씨는 "이제라도 12일에 걸쳐 할 일을 끝내겠다"고 약속한 상태여서 갑작스럽게 자살한 할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용인대 총학생회는 분신사유를 "학원자주 투쟁과 관련해 학교측과 마찰이 많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동아리연합회장으로서의 책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은 지난 17일(월) 용인대에서 노점상 지회 주관으로 열렸다.

3명의 일사와 관련 전국철거민연대 회장 남경남씨는 "정권유지에만 목숨을 거는 안재희 파출소 경찰이 사법외로 독재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며 "남씨가 통과후 일어났던 국민적 저항이 갈수록 거세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노점상연합회 선전과장 최인기씨는 "경찰에 의해 죽은 이번 사건은 김영삼정권의 폭압적이고 살인적인 통치행태가 국가기관 전방면에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국가권력, 나아가 권력의 통치행태의 잘못에 있다"고 밝혔다.

이화진 기자

광 위원 5기 한총련 임시 의장 기자회견

"노수석 열사 1주기 맞아 28-29일 총궐기 성사시키겠다"



김위원(전남대 총학생회장, 국문 4) 5기 한총련 임시의장이 지난 2월 27일(목) 충남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위원 임시의장은 이 자리에서 5기 의장을 겸한 각오, 그리고 3월 28-29일 동맹휴업·총궐기투쟁과 진상조사 정권 조기퇴진 의지를 밝혔다.

이노태보에 청년학생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5기 한총련 의장으로 취임하고 있는 김위원은, 의장에 임하는 각오는?

김위원은 나와있고 청년학생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약법철폐·민주주의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범대위)와 조직적 연계를 역점에 두고 있다. 이후의 투쟁은 범대위의 강화를 통해 국민운동으로 나갈 생각이다.

연세대 동맹휴업 이후 일삼았던 집매치 채권하고 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총학생회장이나 총학생회장 등 많은 미질이 예상되는 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김위원은 "모든 한총련의 행사는 막겠다"고 말했다. 이번 총궐기대회도 한총련에 정치적 대의를 할 것이다. 교육개혁추진투쟁을 위해서 교육부장관과, 통일교육원 개편을 위해서 통일원장과 공직자 인명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모든 행사에 대해 그 지역민에게 행사의 내용과 함께 한총련의 목표, 방향에 대해 알려내어 정부의 강경대응에 맞설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연세대 통일투쟁에서 보여줬듯이 언론의 용인폭력을 극복하는 일이다. 그래서 언론에도 적극적으로 한총련이라는 조직을 알려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김위원은 28-29일 동맹휴업을 총궐기는 노수석 열사 1주기를 맞아하는 투쟁이기도 하다. 부정부패의 경우는 동맹휴업 성사를 위해 개강 직후부터 20여일 간의 단식농성을 결의했다. 이렇듯 각 지역의 모방사태를 토대로 '모방사태'를 모아 전파할 것이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공동기자단

기업, 노조 '죽이기' 총력 노조간부 고소·고발, 옥실에 강대동원까지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8일까지 계속했던 1, 2, 3단계 노동쟁쟁과이후 많은 단위로 노조가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회사측은 노조탄압을 위해 노동법규를 적용하는 하한 파업참가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하고, 노조사무실에 용역파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회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대표적인 노조중의 하나가 상남사에 있는 인화의료원 노동조합이다. 인화의료원은 한진그룹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조합원이 480명 정도이다.

이 노조는 노동법 날치기계약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의뢰측은 즉시 김경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1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의뢰측은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해 1인당 평균 80-90만 정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월급으로 처리해 정근수당도 주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사들과 부서장들이 노조원들에게 징계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인화의료원의 한 노조원은 회사측의 탄압에 대해 "그런



인하노조 탄압규탄 노동자.사

이런 투쟁의 승리를 교훈삼아 4단계 총파업도 꼭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안산 반월공단에 있는 덕부전에서는 회사측이 이성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노조간부 6명을 해고하고 26명 6천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또한 회사측이 비밀리에 작성한 조합원에 대한 대량 정리해고 계획과 노조와대립공작을 담은 대외비밀문서가 발견됐다. 이 문서에는 의뢰한 회사측은 조합원의 1/2인 125명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삼았고, 또한 조합원을 3단계로 구분해 각각 포섭 및 설득작업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불법파업을 경찰활동, 고소·고발 등의 즉각대응을 위해 경찰과 경찰에 협조를 구하기도 한 사실도 밝혀졌다.

영역경찰을 동원한 폭력적 노조탄압도 각사업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강우곡우와 덕부전에서는 전파자들로 구성된 용역파에 의해 노조탄압이 효과를 거두자 인양중 양방면에서도 용역파를 동원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노조자주에 따르면 서울영남에서는 남사시업은 동원해 설득책까지 진행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진 기자

사회단신

전교조, 노동기본권 확보 위한 집회열어
전교조 교사 22일부터 야당 당사에서 농성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2월 24일(월) 2시에 여의도 공관에서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전교조 학교 문화개선 결의대회'를 가졌다. 전교조는 이날 집회에서 정부의 기만적인 '제2교원법'을 반대하고, 이번 노동법개정 작업에서조차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했다. 또한 전교조는 이날 "민주노총의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2.9%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찬성하고, 또한 국민의 70.7%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 부처와 야당에 책임있는 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날 집회에는 고등학생들도 상당수 참가했다. 친서단, 단원지역에서 선생님을 따라 참석한 고등학생은 "전교조 선생님을 지지해 임에서 기쁘다"고 말하며 "저희들도 학생임을 만들어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전교조 선생님이 국민회의와 지진 연 당사에서 "전교조 합법화와 교사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성에 들어갔다.

안기부 요원 가스충 난사
덕성여대 총학생 회장 불법연행

김은의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이 지난 2월 23일(일) 오후 8 시경에 안기부들에게 불법연행됐다. 김총학생회장은 23 일 새벽에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후, 짧은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교문을 나가는 도중에 연행됐다. 학생과 시민 30여명이 총학생회장을 보호하려 했으나, 경찰과 전경 150명(15명)이 학생과 시민들에게 가스충을 쏘며 폭력을 총학생회장을 연행해 갔다. 김총학생회장은 장안동 대공법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1월 1일 서해안과 광안시학생위원회가 폭스를 교한 편지를 주고 받은 내용을 지난 2월 10일(월) 덕성여대에서 대외보화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은 "김영삼정권은 자신의 위기를 공안정국을 조성해 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덕성여대 학생들은 안기부체제와 총학생회장 구출, 그리고 김영삼정권 조기타도와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S대 경영학과 2학년 한동민
내가 만약 LG전선의 사장이 된다면...

"캠퍼스에 꿈의 자동판매기를 기증하겠다."

LG 자동판매기

- 김동민 자동판매기
- 이동통신 자동판매기
- 유선전화기 자동판매기
- 한정판 자동판매기
- 실용성
- 미용과 디자인
- 프리미엄 서비스
- 서비스 품질 향상

모든 저력 속마음은 적정 열매네.

에고~, 실심한 게 저지~.

50주년 기념

LG전선

전력기기, 설비사업, 빌딩설비사업, 제어기기사업, 플랜트사업, 산업기기사업

신입 전기·전자 No.1

전력기기, 빌딩설비, 제어기기, 플랜트, 산업기기



김대통령과 한보 관련있다 52.7%

74%, 정치적 타협 우려 청문회보다 특검제 선호

거울 반향 동안 매일 신문 1면을 장식하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노동법·안기부법 남치기 통과 사건, 민주노동당과 한국노동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파업, 한보부도 사태, 한진중공업 사법정리 사건.....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지 알아볼았다. 이 설문조사는 지난 26일(수)부터 28일(금)까지 의대상 3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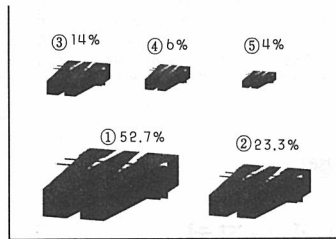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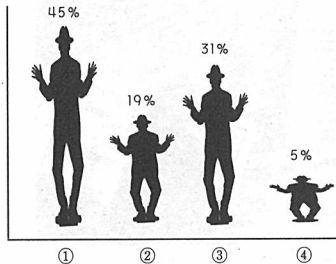
지난 해 12월 26일 남치기로 인해 세대는 노동자의 파업으로 시작되었다. 익히 알려진 대로 정태호씨, 변형근씨 등 많은 반발을 사고 있는 남치기된 노동법은 60%가 전면 무효화하고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9%가 전면 무효화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4단계 총파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응답하였다.

노동법 남치기보다 더욱 심각한 것이 안기부법 남치기였다. 한총련 연세대 통일 투쟁과 강릉 침수함 사건 이후 계속되는 공안분위에서 남치기되어 민주노동당 등 많은 진보인사들이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의대인 중 31%는 남치기된 안기부법이 인권탄압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조작, 공작정치를 막을 수 있다면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기부법 남치기가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점과 안기부의 현재까지의 모습을 볼때 이는 불가능하므로 안기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19%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한보부도에 대해서는 남치기 이후 거세지는 반진영삼 반한진국당 정서를 덮으려고 일어난다고 23.3%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한보그룹이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번 한보사태는 한보가 김대통령의 대선자금 및 정치자금에 대해 여러 특혜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52.7%가 대답하였다. 더불어 검찰은 예상대로 한보사태의 주범인 권혁중의 핵심을 수사하지 못했다고 89%가 생각하였다. 응답자의 10%는 검찰이 정권에서 자유를 못한 상태에서 그러도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민족화합 민족 진상규명을 하려면 특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74%가 밝혔다. 국화청문회는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에 도입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설문조사 중 만난 많은 의대인은 한보사태의 진상규명은 정경유착과 더불어 검찰이 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텔레비전이나 일간지에서 나오듯이 81.3%가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가 한보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대통령이 '몸제'이고 김현철씨가 '손, 발'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허윤숙 기자



남치기 통과된 안기부법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개정 전의 법안으로도 충분하여 대선을 의식해 개정된 것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
- 2) 안기부가 발인 많은 조작, 공작사건들을 볼 때 안기부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 3) 인권탄압을 방지하고 민주인사들에 대한 조작, 공작정치를 막을 수 있다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
- 4) 국가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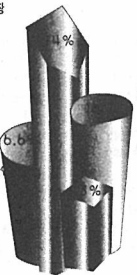
한보사태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김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뒷받 한보에 대한 여러 특혜가 김대통령 권력악용에 누수로 인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 2) 노동법, 안기부법 남치기에 용인 국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술책이다.
- 3) 모호하다.
- 4) 한보그룹 자체의 경영 부실 때문이다.
- 5) 신한국당 내에서 대선주자를 낙점하기 위한 김대통령 측근의 술책이다.

- 1) 국회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
- 2) 청문회의 경우 정치적인 타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별검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3) 기타

4) 우리나라의 공식적 수사기관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



▶막 인터뷰

"개혁이란걸 하면 항상 서민들만 고생하게 돼요"

김재일(47) 목사 골목내 창호내 식당 운영



한보 그룹이 은행에서 빌린 돈을 사와 상자에 차곡 차곡 담으면 20만 장자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같은 사람은 세상 살 맛 안나. 우리가 진짜 가게를 옮길 때 은행에서 1000만원이라도 대출하려고 하면 담보없으면 절대 안해주고 그러거든.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같이 돈 없고 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지.

문민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니 그렇게 없을 줄 알았지, 요, 아 그런데 인사가 만사라면서 각종 요직에 사람들 앉히는 걸 보면 허탈해. 이른 바 PK일색이니까. 요즘은 검찰 말기라 그런지 더 한나니까. 그렇게 하고 어떻게 올바른 정치를 한다는 건지...

한보그룹 부도 이후로 돈을 매일 찍어 낸다는 데 그러면 또 물가 인상 되고 또 우리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지. 안 그래요? 시장에 가보면 다 장사 안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수진 동아대 아랍어과 1학년



노동법·안기부법 남치기는 정부의 뜻대로만, 정부의 뜻대로만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동자들의 뜻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재 고등학교에 돌아보면 대학 입시제도도 학년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공부 안하는 애도 있었어요. 또 입시 제도 바뀔 때마다 공부하면 뭐하나 하면서요. 김영삼 대통령은 교육개혁 한다고 말로만 그랬지 막상 공부하는 학생들은 생각 안하는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평가가 자주 잘못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노동자, 학생 등등 할 것 없이 시위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김대통령 취임 초기에는 군사독재가 아닌 문민정부라고 하여 많이 기대했는데 실망스러워요.

박호진 동아대 중국어과 2학년



한보 사태요? 남치기로 인한 노동자 파업 무마하려고 나온 거 아니예요? 한보사태에는 김현철씨 관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보사태는 대선자금을 비롯한 갖가지 정경유착의 정황이요. 아마 여러 기업도 비슷비슷하게 연루돼 있을 걸요.

검찰도 일종의 피해자요. 검찰은 어디 제대로 수사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 검찰도 불쌍해요. 아무리 경제위기로 해도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파업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회사원이신데, 남치기된 노동법 보면정리해봐, 변형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담당 수장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니까 파업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재가 노동자라도 하겠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문민정부라 하면서 금 융실명제, 재산공개 등을 찬찬한 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 보면 이렇만 개혁이었던 실연된 것이 없어요. 항상 개혁이란 걸 하면 서민들만 더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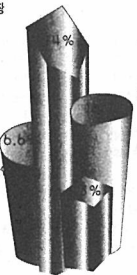
외 대 만 평



만족하지 않는다면 진상규명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3) 기타

4) 우리나라의 공식적 수사기관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



EPSON Stylus Color 500

Prints 300 x 300 dpi, 180 x 180 dpi, 720 x 720 dpi. Print speed: 100 x 100 dpi, 100 x 100 dpi, 100 x 100 dpi.

EPSON Stylus Color 500

Prints 300 x 300 dpi, 180 x 180 dpi, 720 x 720 dpi. Print speed: 100 x 100 dpi, 100 x 100 dpi, 100 x 100 dpi.

EPSON Stylus Color 500

Prints 300 x 300 dpi, 180 x 180 dpi, 720 x 720 dpi. Print speed: 100 x 100 dpi, 100 x 100 dpi, 100 x 100 dpi.

"PC매거진의 눈을 사로잡았다!"

美 PC매거진 선정 최우수 컬러 프린터 -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가 세계적인 PC매거진 미국의 'PC매거진'이 실시한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개인용 잉크젯 프린터 부문 최고의 프린터로 선정되었습니다. 출력속도, 선명도, 호환성, 경제성, 편리성을 비롯, 구입 후 고객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까다롭고 정확한 비교 평가를 통해 '고객에게 최선의 선택'을 보장하는 프린터로 선정된 스타일러스 컬러 500H-이제, 잉크젯 프린터도 세계가 인정한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프린터입니다.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Prints 300 x 300 dpi, 180 x 180 dpi, 720 x 720 dpi. Print speed: 100 x 100 dpi, 100 x 100 dpi, 100 x 100 d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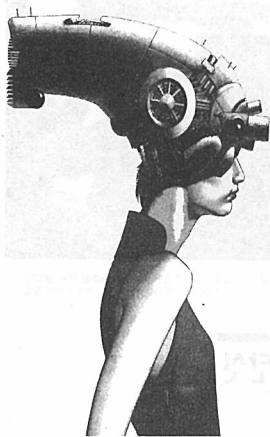
삼보 스타일러스 컬러 500H

Prints 300 x 300 dpi, 180 x 180 dpi, 720 x 720 dpi. Print speed: 100 x 100 dpi, 100 x 100 dpi, 100 x 100 dpi.

서평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장정일의 일석삼조인 '메저키즘'

인간행복에 근본적 회의 촉구



서평의 역할이 책을 읽은 독자에게는 재해석의 기회를, 아직 읽지 못한 독자에게는 능동적 해설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데 있다면, 내가 지금부터 쓰려 하는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 봐'에 대한 서평은 이미 서평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온 종갓도 출간 당일 학교 앞 서점에서 잡싸게 책을 구입한 친구의 선견지명 덕택에 나는 몇 달이 지난 후에도 그 책을 읽게 되었으나, 내용은 커녕 표지조차 보지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 지한일 것이며 그 불행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여 나는 이 글을 통해 문제의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기보다는 장정일 스스로 이 작품에서 극점을 이루고 있다는 그의 소설세계에 근접해 볼 것으로써 그가 쓴 다른 소설 '이름이 낯을 때', '내게 나를 보내다' '네가 제2를 믿는다' '이 글로움'('장정일의 독서일기' 1,2,3)을 읽은 사람들 혹은 평소 그에게 막연한 흥미를 느껴 왔던 사람들에게 긴장을 부여하고자 한다.

'리뷰' 9호에서 문학평론가 손경록은 장정일의 이번 소설을 "삶의 일부를 전부인 듯 제시하러는 '파편화'의 경향"을 담지한 대표작으로 꼽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면의 질문을 절망하고 있다며 엄중히 질타한 바 있는데, 한때 동일한 질문에 "사조잡탕"을 써놓은 세월

을 보낸 적이 있고 지금도 그 질문이 방치해 놓은 화두인 인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앞의 평론가에게 전면적 인 재검토를 촉구하고 싶다. 더불어 80년대의 향수가 풍기는 그 절대절망의 질문에 대해 장정일은 발인들보다 한 계단 아래에서, '진보'라는 상식의 수면 아래로 헤엄쳐 들어와 사그라지고 있다. 각각 '자기모멸', '신비'('신적화'인 아버지)의 줄임말)의 재현, 그리고 '무위'(無爲)를 세 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형의 중심에는 장정일이 이번 소설에서 전술적으로 채택한 '메저키즘'이 위치한다.

장정일의 '자기모멸'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려 온 모든 위선적인 특권과 특혜를 유감으로써 단번에 부정하기, 둘째, 프랑스의 형식으로 소설 전체를 치장하여 굳어진 소설 형식과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공격하기, 셋째, '아버지'에 저항하기, 자신을 '동'으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를 '개세계'로 만드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수렴된 자기모멸은 동시에 자기 안에 내재화한 아버지를 함께 모멸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만 아버지를 닮은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테면 장정일형 형식들, 제국주의, 전제주의, 종교 등이,

특히 소설에서 억압으로 작용해 온 '문어'라는 아버지에게 저항하기 위해 '구어체'를 마음껏 풀어 놓을 수 있는 포르노 형식이 또 한번 사용된 것이다. 한편 소설 내내 되풀이 소개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주인공은 "인간은 뭐 한 거지? 하고 앉고 숨은 쉬며, 숨은 쉬는 이들을 만들고 말"을 하며, 또 빠져나가 맘 흘려 일을 한단 말인가?라고 즐겨 말하면서 인간 고유의 책임과 축복인 '성(성식)'과 '노동'을 부정한다. 의심의 여지 없이 신성시되어 온 성과 노동에서 그 신성을 제거함으로써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이며, 그렇다면 진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회의에 달기까지 하는 것이다. 이제 메저키즘은 자기모멸의 구체적 수단인 동시에 신체모독을 통해 그것을 낳아준 신과 아버지에 저항하는 무기이며, 삼입과 성식을 거부함으로써 무위에 다다르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자기구원책인 셈이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지금도 당신의 이빨들 속에서 죽어나 살아가는 슬픈 노래가 있는 '동', 그리고 그 노래 바로 당신임을 인정하라, 당신을 키우고 당신안에 포아리를 뜬 모든 '아버지'에 저항하라, 당신이 억척스레 믿고 있는 행복의 근원들 - 성식과 노동 - 을 의심하고 그것이 과연 당신이 바라는 행복인지 솔직히 고백하라. 이것이 바로 장정일 문학이 그대들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결론으로 이번 소설을 계기로 다시 촉발되고 있는 창작의 자유와 창작행위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딜레마에 대한 나의 해설책을 제시한다. 우선 '때때로 진화하기' 예술 작품이 예술적인 가치가 달한 작품에 비해 한결 위험한 경우를 보여준다. 작품에 따라서 신앙이나 행동방식, 당대의 사회 풍조로 약탈함을 끼치는 경우가 있다는 '메가이드'라는 울베르트 예크의 지적을 수용한 후에 다음과 같은 장정일 자신의 독서에 귀기울이자. "나는 한 작가의 작품이 실존의 체험들이자 경제 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판매금지에는 반대하지만 유통 방법 상의 제재에는 어느 만큼 수긍하는 편이다. 예로써의 경우 사회 정서와 능력과 개인의 이해 능력에만 달기에는 각자의 능력에 차이가 있고 상흔에 약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 유통방법 상의 제재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겸손한 일로 보인다." 줄은 말한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미성년자 출입 및 관람 금지라는 타율제를 실시해 오고 있지 않은가. 이에 나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에도 '등급심사제'를 도입할 것을 진지하게 제안한다.

이 중 국
(서양·영역 4)

우 리 말 이렇게 쓰자!

'사거리'가 아닌 '네거리'로 건너자!

▲네거리는 네 갈래로 갈라진 길거리를 가리킨다. 세거리는 세 갈래로 갈라진 길이다. 그런데 네거리나 세거리란 말을 듣기가 쉽지 않았으니 그 까닭은 무엇일까. 사거리와 삼거리란 말이 있어서 네거리나 세거리라는 말을 듣기 어려웠다.

-네거리 교통호를 두배 빨라져
-(그림)사거리
-(그림)삼거리
지난 조선일보 2월 10일자 신문에 '네거리 교통호를 두배 빨라져'라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런데 제목에는 '네거리'라 했으나 '그림'에서는 '사거리'와 '삼거리'라고 썼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네거리를 잘 살펴 써서 좋았다가 만 셈이다. 네거리와 사거리란 같은 말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나 둘은 크게 다르다. 네거리를 쓰면 알맞은 우리말이지만 사거리는 어색한 말일 뿐이다.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할 말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아침(점심, 저녁) 드셨습니까라고 해야 할 말을 식사하셨습니까라고 하는 것과 같다.

사거리를 줄곧 써온 사람이 네거리를 쓰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네거리를 쓰기 어렵다고 해도 네거리를 써야 알맞은 문이다. 고쳐 쓰기 어려울 때는 생각(고민)을 해야 한다. 어떻게 말을 해야 네거리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는가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같은 뜻을 나타내는 말도 많지만 두

미거나 다르게 쓸 수 있을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 어떤 말인가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말을 쓸 때는 이러한 생각을 잘 하지 않는 듯 하다. 하고 다니다 영어를 배울 때는 같은 뜻인데도 여러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웠으며 같은 뜻을 가진 낱말이나 글귀를 가리는 것도 배웠다. 그런데 우리말을 배울 때는 것처럼 여러가지로 나타내는 방법이나 같은 뜻을 나타내나 글귀를 가리는 것은 가깝게 지나쳐버리기 일췌였다.

우리는 우리말에 가지는 관심을 바깥말에 가지는 관심에 전유어 막없이 모자라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열어나 한자'는 있어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우리말'은 없다. '오성식 생활영어'나 '굿모닝 캠프'는 있어도 우리말을 이야기하면 다루는 일은 눈앞에 헛기 어려울 만큼 드물다. 관심도 드물기에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바깥말을 익히거나 배우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말을 먼저 배웠고 알맞게 쓴 뒤 바깥말을 익히거나 배우는 바깥말과 우리말을 비교하고 알맞게 써야 한다.

바깥말을 배우는 까닭은 무엇이며 우리말을 쓰는 까닭은 무엇인가. 바깥말을 배워서 어디에 어떻게 쓰겠는가? 바깥말을 배운다고 우리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말은 한 마디도 쓸 필요가 없는가? 우리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을 셈이며 바깥말

사 진
수 필

4년, 짧지 않은 기간이다.
게다가 20대의 4년이란 푸른 봄, 푸른 봄새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시간이다.
우리의 푸른 4년을 마련해 주신 분
우리의 부모님.

- 27일 열린 우리 학교 졸업식장에서 한 졸업생이 아버지에게 학사모를 씌우고 있는 모습
김학영기자

이 그토록 무거운 것이었음 지금과 같이 바깥말에 관심을 가지는 일은 잘하는 일이었으나 우리말을 한 마디라도 한다면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열어나 한자' '오성식 생활영어' '굿모닝 캠프' 같은 책은 모두 우리말로 풀이하여 알려주고 있다. 바깥말을 배우거나 가르치지만 우리말을 하면서 필요하기에 배우거나 가르칠 뿐이다. 그렇지만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은 우리말을 가르치고 알맞게 써야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우리말을 바

르고 알맞게 쓰지 못한다면?

이렇게까지 하며 바깥말을 배우는 하는가? 바깥말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꼭 해야 한다. 생각을 해서 자신이 바깥말을 배워서 어떻게 어디에 쓰겠는가하는 목적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말이 바르고 알맞게 쓸 수 있는 터전을 닦는 일이며 바깥말을 바깥말답게 쓸 수 있는 길이다.

최 중 국

(네덜란드 94, 현재 군복역 중)

“나는 지금 외대학보로 간다”

당당한 세상에 진실을 새기는 기자가 된다



수습기자 모집

“방향 많고 길잡이 많은 세상
뭔가 좋은 길입니까
답답하고 거짓투성이 세상
뭔가 진실입니까
스무살 푸른 청춘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모집대상 : 97학번

모집기간 :

3월 27일까지

모집부서 : 대학·사건·

사회·문화·광고·문화부

모집전형

자기소개서

논술 및 면접

문의 :

서울 961-4152, 4461

문의 0355/30-4112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